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오병국 연구위원,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본고는 전국 성인 남녀 60세 미만의 비은퇴자 1,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수준 등을 살펴보았음. 대부분 응답자는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생 연도에 따른 정상 수급 연령에 맞춰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응답함. 국민연금 정상 수급 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해 소득 크레바스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적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¹⁾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고 있어,²⁾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임
 -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평균 50대 초반³⁾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해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⁴⁾가 더욱 길어질 수 있음
- 이에 본고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만 60세 미만의 비은퇴자 1,508명의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 등 은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⁵⁾
 - 비은퇴자 대상 은퇴 관련 문항은 평소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과 대비,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대비, 국민연금 수령 등에 관한 질의를 포함함
- 응답자 중 76.9%가 평소 은퇴 준비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했으며, 36.1%만이 자신의 은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함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은퇴 위험에 대한 염려 정도가 높아졌으며,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1)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연령(정상 수급 연령)부터 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자는 정상 수급 연령보다 5세 앞선 연령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4_02.jsp)
 3)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2023. 11. 2), “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4)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나타냄
 5)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표 1〉 평소 은퇴 준비에 대한 염려 및 대비 정도

(단위: %)

구분	은퇴준비에 대한 염려 정도		은퇴에 대한 대비 정도	
	걱정하지 않음	걱정함	준비하지 못함	준비함
전체	23.1	76.9	63.9	36.1
20대	36.1	63.9	71.8	28.2
30대	23.5	76.5	65.3	34.7
40대	15.4	84.6	62.6	37.4
50대	19.1	80.9	56.9	43.1

주: 1) 전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포함함

2) 응답자들은 은퇴 위험에 대한 염려 정도와 대비 정도를 6점 척도로 응답했으며, 1점부터 3점까지를 '걱정하지 않음' 혹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4점부터 6점까지를 '걱정함' 또는 '준비함'으로 분류함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 응답자 중 28.5%만이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42.1%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뜻은 모르며, 나머지 29.4%는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응답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나,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정확한 뜻을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 크레바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50대 응답자의 경우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5.6%에 불과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2〉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
전체	28.5	42.1	29.4
20대	20.3	38.9	40.9
30대	27.7	40.9	31.5
40대	29.1	44.5	26.4
50대	35.6	43.6	20.8

주: 전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포함함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 또한 비은퇴자 중 12.0%만이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1.3%는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6.7%는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함

- 〈표 1〉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은퇴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와 비교해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은퇴 위험인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준비 정도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인식도가 비교적 높은 50대의 경우도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현재 잘 준비하고 있다는 비중이 16.1%에 불과했음

〈표 3〉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대비 정도

(단위: %)

구분	현재 잘 준비하고 있다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전체	12.0	81.3	6.7
20대	9.0	73.5	17.5
30대	12.7	82.1	5.3
40대	10.0	87.3	2.7
50대	16.1	81.4	2.5

주: 전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포함함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 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예상하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 1순위는 국민연금이며, 대부분 정상수급 개시 연령에 연금 수급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해 소득 크레바스 심화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음

- 응답자가 예상하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은 국민연금(46.9%), 예금·적금·저축성보험(16.1%), 퇴직연금(8.9%), 주식·채권(8.7%), 개인연금(8.6%), 부동산(7.1%) 등의 순으로 조사됨(중복응답)
- 국민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75.5%가 원래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 모든 연령대에서 원래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 연령⁶⁾에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3%를 상회하여 이러한 계획에 큰 변화가 없다면 현재 50대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도 더 길어진 소득 크레바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

(단위: %)

구분	원래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받기 시작할 계획	국민연금 수급 연령보다 미리 받기 시작할 계획	국민연금 받는 시점을 연기할 예정
전체	75.5	12.8	11.7
20대	74.0	17.0	9.0
30대	73.1	12.0	14.9
40대	73.4	14.3	12.6
50대	80.1	9.6	10.3

주: 전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포함함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 요약하면 대다수 응답자들의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 및 대비 수준이 낮으므로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소득 크레바스에 대응할 수 있겠으나,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55세 이상이므로 소득 크레바스 심화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대부분 응답자의 은퇴 후 소득 준비 수단으로서 사적연금 활용도⁷⁾가 높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 및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6) 2023년 설문조사 기준으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은 20~40대가 만 65세이며, 50대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3세에서 만 65세까지 분포함
7) 은퇴 후 소득 준비 방법으로는 퇴직연금 36.0%, 개인연금 34.6%, 주택연금 7.8% 순으로 응답함(중복응답)